

“제주특별자치도 인력 운용 기형적 구조”

도의회 행사·복지위

“인력도 본청에 집중돼 일선 민원부서는 과부하”

일시중단 독감 예방접종도에 특단대책 마련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형적 인사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인력이 도 본청으로 집중되면서 일선 민원부서 업무는 과부하에 걸렸다는 지적이다.

24일 열린 제주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제5차회의에서 이경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흥·대륜동)은 제주도 총무과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도 본청과 양 행정시의 기형적 인력배치를 문제 삼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공무원 증원 최소화화 및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기구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기형적 인사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도의회 제공

이 의원은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6164명이며, 도 본청은 3310명(54%), 양 행정시는 2854명(46%)이다. 올해 6월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08.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인건비 비중은 10.7%로 전국 평균 8.1% 보다 높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와 행정시(인력배치가)가 기형적 구조로 가고 있다”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손발이 많이 필요한 부서의 인원을 늘리고, 관리감독 부서는 줄여야 하는데 머리는 늘어나고 손발은 적어지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된 역삼각형 구조로 다리가 부실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의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회의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유통 과정 문제 발견으로 일시 중단된 독감 예방접종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접종 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겨울이 다 가고 접종을 하면 의미있는 접종이 되겠느냐”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어느 시기에 어디 가서 맞아야 하는지, 도민에게 정보 전달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접종자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대한 12월말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이며 접종 의료기관도 293곳에서 358곳으로 확대해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지역화폐 도입, 심도있는 검토 필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 첫 선을 보이겠다는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농수축위는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지류형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했다”고 심사보류 배경을 밝혔다.

도의회는 10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22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농수축위는 제주도가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례 제정 전 입에도 제주도가 관련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도는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카드·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또 농수축위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도는 최근 지역화폐 이름을 ‘담나는전’으로 확정했다. 오은지기자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제동’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지역 해녀들의 반발 속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익)는 2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해당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 결정했다.

한도위는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권 축소로 인한 어업인 피해 발생 최소화 방안,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전자파 영향, 발전시설 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 생태계 영

향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첫 해상풍력 개발사업이다.

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약 5.63㎢ 해역에 2년간 총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해 5.5MW 풍력발전기 19기를 설치하는 등 104.5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도위 회의가 열리기 전 구좌읍 한동리 어촌계 해녀들은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오은지기자

제주 특산어종 ‘벤자리’ 치어 6만마리 바다로...

오늘 조천·표선 연안서 방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소는 25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포구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연안 해역

에 벤자리 치어 6만마리를 방류한다. 벤자리는 온대에서 아열대 해역까지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추자도 남쪽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제주 특산어종이다.

또한 수심 50m 이내 암초가 발달한 지역에서 어획되는 연안성 어종으로 제주에서는 조림과 국거리용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최근 횡간으로 인기가 높아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획량이 적고 여름철에 주로 잡혀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소는 벤자리 대량 인

공종자 생산 성공을 계기로 차세대 양식품종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방류되는 벤자리 치어는 국립수산물연구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수정란을 분양받아 연구원 실내수조에서 약 100일간 사육해 7~10cm로 성장했다. 이태윤기자

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 준비 ‘착착’

서귀포시 2022년 달성 목표 당도·품종·유통 3대혁신 추진 올해 비상품 유통 차단 주력

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3대혁신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022년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해 당도·품종·유통의 ‘3대혁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무엇보다 ▷당도혁신을 위해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으로 감귤명인교육·토양피복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품종혁신을 위해 우량품종 대모공급과 더불어 종자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농식품부에 필요 예산 12억원을 신청중이다. ▷유통혁신을 위해서는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함께 온라인장업능을 1000여 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만

감귤 출하 사전검사와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더불어 올해 감귤조수입 8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감귤조수입 최고액은 지난 2017년산 7253억원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추석명절을 겨냥한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예년에 비해 이른 지난 9월 초순부터 유통지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과수원 단속과 수확전 당도검사를 통해 비상품감귤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 감귤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비상품감귤 판매 의심자를 추적·단속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금까지 3건·57.6t의 비상품감귤을 적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물량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현영종기자



서귀포시가 2022년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해 당도·품종·유통 ‘3대 혁신’을 추진한다.

노인 채용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인당 20만원... 최대 5명

제주시는 노인을 채용한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체로,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곳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업체당 최대 5명(월 100만원)까

지 지원된다. 올해 2분기까지 200개 업체에서 노인 440명을 고용해 5억 15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10월 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아 서류 심사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노인 근로자는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그랜드보청기

추석하기위해 1개 1개 드림행사!
* 전량보형용량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출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430만 → 150만! 860만 → 270만!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 국제보청기(국가인증)
한라체육관 ● 시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